

# K-반도체기업, 재무여력 개선… 美 중심 글로벌 투자 속도

메모리 업황 호조… 현금창출력 회복  
삼성 테일러공장 임시사용 승인 확보  
SK 6조대 패키징 공장 건설 가시화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재무 여력이 개선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테일러 팹이 가동 준비 단계에 진입하면서 양사의 글로벌 투자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건설 중인 1호 공장의 일부 공간에 대한 임시 사용 승인(TC I)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인 구역은 삼성전자 테일러팹 총 부지 500만m2 중 8175m2에 해당하는 크기로 TCO는 화재 안전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필수 행정 절차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테일러 팹 가동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

아들이고 있다. 장비 반입 움직임도 포착됐다. 한국 반도체 장비 및 서비스업체 디바이스는 지난 1월 29일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109억원 규모의반도체 세척 장비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납품은 오는 10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며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장비가 테일러 공장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테일러 공장 건설 일정을 앞당기려는 노력과 함께 장비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며 2nm 공정 수율 개선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말 투자 자회사인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인비식스의 소수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초기세 공정의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로 유명한 네덜란드 ASML 출신 직원들이 설립한 인비

식스는 EUV 리소그래피 장비의 성능 검증에 있어 핵심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165억달러 규모의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해 테일러 공장의 일감을 확보했으며 올해 연말 초도 양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테슬라 외에도 구글과 AMD를 유력한 고객으로 거론하며 추가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 파운드리에 테슬라 관련 물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또한 38억 7000만달러(한화 약 5조5850억원)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짓기로 한 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웨스트라파에 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SK하이닉스가 신청한 사무동 건물과 유틸리티 센

터(CUB), 반도체 공장 등 시설의 기초 공사 하기를 신청했다.

SK하이닉스는 환경 인허가를 비롯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장 가동 목표는 오는 2028년 하반기다.

또한 SK하이닉스는 향후 5년간 미국에 AI설루션 회사인 ‘AI 컴퍼니’ 설립을 위해 100억달러 투자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핵심 역량을 가진 글로벌 기업을 발굴하고 AI솔루션 사업화 기회를 추진해 ‘풀스택 AI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메모리 업황 개선으로 현금창출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에 대한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된 상황”이라며 “양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생산 거점 확대에 나서는 것은 단기 호황 대응이라기보다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CJ프레시웨이, 마켓보로 지분 27.5% 인수

인수금액 403억… 최대주주 등극  
건강한 식자재 유통 생태계 구축 목표

식자재 유통 및 급식 1위 기업 CJ프레시웨이가 국내 식자재 오픈마켓 리더 플랫폼인 ‘식봄’을 운영하는 마켓보로의 최대주주가 됐다. 식봄에 입점된 20만 종 이상의 식자재를 CJ프레시웨이의 전국 단위 콜드체인 물류망을 통해 공급하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를 위한 건강한 식자재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CJ프레시웨이는 5일 마켓보로에 대한 지분인수계약(SPA)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 대상은 마켓보로 지분 27.5%이며 인수 금액은 총 403억원이다.

CJ프레시웨이 이견일 대표이사는 이번 인수에 대해 “국내 식자재 유통 산업을 선도하는 CJ프레시웨이가 보유한 강력한 물류망과 오픈마켓에 최적화된 마켓보로의 기술력이 결합돼 온라인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플랫폼 운영사와 판매자, 구매자 모두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CJ프레시웨이 양산 물류센터. .

말했다.

마켓보로는 식자재 유통 온라인 시장을 선도하는 오픈마켓 플랫폼 ‘식봄’과 식자재 수발주 및 유통관리 서비스 ‘마켓봄’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식봄의 누적 가입자 수는 약 22만명으로 업계 최대 수준이다. 거래액은 지난 2022년 약 200억원 수준에서 2025년 2341억원까지 성장했다.

CJ프레시웨이의 이번 마켓보로 인수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전환 중인 식자재 유통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CJ프레시웨이는 국내 최대 식자재 유통 기업의 노하우와 전국 단위 콜드체인 물류망을 통해 마켓보로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CJ프레시웨이는 그동안 식자재 유통 산업의 미래지향적 사업 모델 구축과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O2O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CJ프레시웨이의 온라인 자사몰 ‘프레시엔’을 론칭했으며 최근 ‘AI 주문 에이전트’ 베타 서비스 도입 등 식자재 유통 산업의 선진화를 선도하고 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63조원 규모 식자재 유통 시장 대부분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마켓보로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상품을 쉽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고, 생산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빠르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게 되며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산업부, 대한상의 보도자료 감사 착수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정책실패 훼손”

김정관 장관 “문책·법적 조치 검토”  
상의, 공식 사과… “재발방지 최선”

산업통상부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주요 경제단체들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문제의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하고, 결과에 따라 문책과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9일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부회장들과 ‘긴급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지난주 배포된 ‘상속세 부담에 자살자 유출 세계 4위’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의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해당 보도자료에 인용된 ‘고액자산가 해외 순유출’ 통계는 전문 통계기관이 아닌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며, 이미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들로부터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 자료다. 산업부는 대한상의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 없이 이를 인용·확산시켰고, 원자료에 상속세 언급이 없음에도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와 연결해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전날(8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이주 신고자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에 불과하다.

김 장관은 “정책적 목적이 어떠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공적 영향력을 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진 기관을 통해 유통되는 것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해치는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했으며,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과 법적 책임까지 엄중히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2월 말부터 주요 경제단체·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정부 정책과 현장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에 선 대한상의는 이날 공식 사과와 함께 내부 쇄신책을 내놔다. 대한상의는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오류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감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 책임 소재를 파악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도 미국 출장 중 이번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데이터를 면밀히 챙겼어야 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대한상의 사무국을 강하게 질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송미령 “과천 경마장 이전, 마사회 의견 반드시 반영”

〈농식품부 장관〉

“의제화 됐으니 적극적으로 소통”

정부 부동산 공급 대책 중 하나로 발표된 경기 과천 경마장(벡트론파크 서울) 이전 계획과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미리 한국마사회에 알려준 사안”이라며 “마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경마장 이전에 대해 관련 부처 간 결정 과정은

설명해달라’는 기자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 소재 경마장을 이전 후 국군방첩사령부와 통합 개발하고 이를 통해 주택 98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호) 다음으로 공급량이 많은 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경마장을 이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마사회와 협의하겠다

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송 장관은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마사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비공식적으로 마사회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이미 알려줬지만 (당시에는) 마사회가 공식적으로 논의할 조직이 구성되지 않아 협상을 충분히 할 단계는 아니었다. 이제 의제화가 됐으니 지금부터는 마사회랑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